사 설

한 젊은 스님의 이타행

출가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한 젊은 스님이 계속해 생명 나눔의 보살행에 동참해 우리 모두의 심금을 흔들어 놓고 있다.

경남 양산 통도사의 도우스님이 죽음을 눈앞에 둔 30대 가장 김 모씨에게 간을 기증, 새 생명을 얻게 해줌으로써 화제가 되고 있다. 도우스님은 애타게 간 기증자를 찾고 있던 김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생면부지의 그에게 서슴없이 간을 기증했다고 한다. 간을 기증하면서 도우스님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도우스님은 놀랍게도 3년 전에는 신장을 기증한 적도 있으며 앞으로도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를 위해 골수도 기증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남을 위한 헌신적 삶을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기 육신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일은 범부로서는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 법은 구도행과 보살행 두 가지 수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도를 얻으려는 구도행, 그리고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보살행이 쌍이고 쌍여 부처님은 성도에 이르신 것이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구도행과 보살행이 없다면 불자가 아니다. 대자대비의 불교, 보살행의 불교는 이렇듯 생명을 나누려는 스님이나 불자들이 늘어날 때 비로소 구두선(口頭禪)의 불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 젊은 스님의 이러한 생명 나눔의 이타행(利他行)은 불교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을 자못 숙연하게 한다.

탈북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탈북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재외공관이나 외국 대사관을 통한 이른바 기획 망명에서부터, 최근의 선박을 이용한 탈북 등 방법도 다양화됐다. 과거 귀순 또는 월북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다. 과거의 경우는 그 수도 미미했거니와 남북 양측 모두 체제 홍보용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법이 간단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탈북은 주로 생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다 그 빈도도 잦아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불교계에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로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불교계에서는 탈북자를 돕는 문제를 '포교'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물론 포교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오직 부처님의 자비를 적극 실천하는 차원에서 탈북자 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형태의 포교이기도 할 것이다.

아직 한국의 사회 보장 수준이나 사회적 성숙도는 지금과 같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종교계 간의 경쟁적 선교 또는 포교 행위는 당연히 지양되야 할 것이다.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아픔을 보듬어 안으며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것이 우선이다. 불교야말로 그 역할을 가장 자연스럽게 맡아야 할, '무주상보시'의 종교가 아닌가.

최근 들어 불교계의 대 사회적 구실은 크게 향상됐다. 북한산 관통도로 재검토를 이끌어 낸 것이 좋은 사례다. 탈북자 문제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의 종교'로 불교라는 이름이 인류사에 남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지계진작 율사양성

석사과정 '비니원' 11월 개원

파계사 영산율원, 계율연구원 공식·체계화

지계(持戒) 풍토 진작과 율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석사과정의 연구원이 설립된다.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율원장 철우)은 계율연구원인 '비니원'을 동안거가 시작되는 오는 11월19일 개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산율원은 지난해 봄부터 자체적으로 계율연구원을 운영해왔으며, 비니원은 계율연구원을 공식화·체계화한 것이다. '비니(비나야)'는 범어로 '율(律)'을 뜻한다.

철우스님은 "갈수록 계율을 지키는 스님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계율을 강의할 수 있는 율사도 드문 상황에서 지계 '붐'을 조성하고, 후학 율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비니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스님은 드문 실정. 게다가 계율을 강의할 수 있는 스님은 10여명에 불과하고, 해마다 율원을 졸업하는 스님들조차도 더 이상 율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선방이나 포교사로 나서는 등 율학 연구 및 율사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비니원'은 우선 지계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한편, 시대에 맞는 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니원'은 연구원생들에게 일정의 과제를 주고 매년 한차례씩 중국·대만 스님들과 '계율 세미나'를 여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비니원'은 또 계율을 강의할 수 있는 율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2~3년간 소정의 교육을 마친 스님에게 율사임을 인정하는 전계(傳戒)를 하고, 계율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한다. 율사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입학자격도 율원을 졸업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법납 10년 이상의 스님으로, 계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스님으로 제한한다.

'비니원' 개원으로 한해 20여명씩 배출되는 율원 졸업생들의 진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율원 이외에 율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승가 전문기관은 비니원이 유일하다. 또 율학을 공부하려는 스님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니원 개원은 율학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율원은 파계사, 송광사, 해인사 등 비구 율원 세 곳과 봉녕사 비구니 율원 한 곳 등 모두 네 곳이다.

모집인원은 10명 안팎. 연구원에게는 개인 방사와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접수는 10월 31일까지. (053)982-2226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봉은사 특별감사

아셈보상금 사용처 조사

강남 봉은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봉은사 특별감사는 아셈건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이유로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상금 67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자승)는 27일 회의를 열고 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총무원 재무부, 기획실 감사국, 회계법인으로 이루어진 특별감사팀을 발족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불교계, 탈북자 정착 다각 지원

하나원정기법회·지역탐방·현장체험 등

최근 탈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불교계의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단체는 좋은벗들과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 조계종 포교사단 등. 이들은 지역 탐방, 남한 사회 현장체험 학습, 불교교양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자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다.

포교사단은 서울경기 대학팀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 법회를 개설, 평균 5~20명에 대한 불교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10월경 2차 정착시설인 하나원 및 3차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도 지역포교사단 및 사찰과 연계해 정기 법회 개설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능토록 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좋은벗들(이사장 유수스님)은 매월 한 차례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불교 배우기' 강좌와 함께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개월 간의 교육이 끝날 때마다 교육생들과 함께 경주지역 불교문화를 돌아보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다.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북한 이탈주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2000년 12월부터 격월로 재래 시장보기, 고궁관람, 노래방, 볼링장 등 우리 문화 체험을 통해 탈북자 정착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포교사단 하영태 사무국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꾸리기 위해 협력기금으로 1억원 상당의 밀가루를 마련해 이뤄진 것이다.

종단협은 지원물품 수혜지역의 분배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3차 지원부터 현장을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문화부 종무관 모철민씨

김성재 문화관광부장관은 20일 종무관(국장급) 부이사관에 모철민씨를 임명했다. 모 종무관은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기획과장, 시설과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 비서실(4급)에 근무해왔다.

김원우 기자

"삼양식품터에 12~13층으로"

조계사, '사찰환경 저해않는 범위' 건축 합의

조계사의 반대로 97m 고층빌딩 건축허가가 취소됐던 (구)삼양식품 자리에 45m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조계사는 최근 (주)넥스트이미지 소유의 삼양식품 부지 매입 예정자 측과 만나 45m(12~13층 규모)를 넘지 않은 건물을 짓고, 신도들의 신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외장재를 사용하는 등 사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부지 매입 예정자가 중소기업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가 난 뒤에 공개하겠다고 조계사 관계자는 전했다.

삼양식품 자리에 97m 주상복합 건물 건축 예정이었던 (주)넥스트이미지는 건물 층수를 줄여달라는 조계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가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자진 철회했었다.

한명우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북한 자강도 량강도 지역 인민

급식용 밀가루 200톤 대북지원

종단협, 자강·량강도지역 어린이용

학교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200톤을 지원키로 결의했다. 이번 대북지원은 26개 종단이 모은 북한지원 성금과 정부의 남북

'현대' 만평 김 영 민

산사에서 휴식과 수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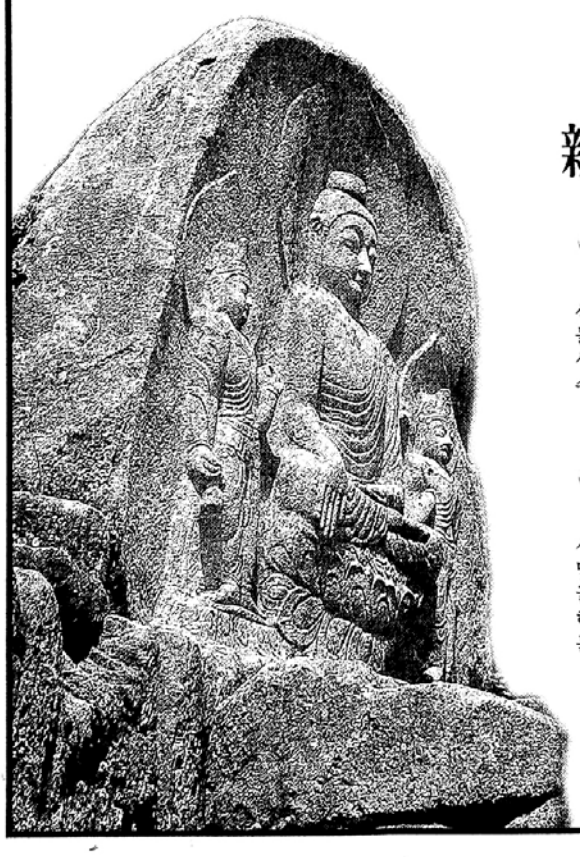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이자 조각과 유적의 보고, 세계문화 유산!



GYEONGJU NAMSAN

慶州南山

新羅精神과 藝術의 慶州南山의 총체적 報告書!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완전 올 컬러 사진!

5년간 2백여 차례의 현장정밀조사를 통해 사적 제311호인 경주 남산에 소재한 포석정 등 670여개소의 유물 유적과 140여곳의 절터, 석불 100여기, 등 불교유적 그리고 왕릉 13기등 선사유적과 4개소의 산성 등을 비롯해 경주 남산의 모든 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컬러사진 800여장에 담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경주시의 적극적 협조와 권위있는 조사연구원과 필진으로 구성!

권위 있는 연구진과 필진, 그리고 해설 조사연구진의 빈틈없는 조사연구와 필진의 쉽고도 탁월한 해설이 중요문화재의 명칭은 물론 소재지와 시대, 규격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경주 남산의 진면목에 다시금 눈뜨게 한다.

이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권위 있는 조사연구원과 필진이 구성되어 가능하였다.

경주 남산 관련 방대한 자료를 총망라 했으며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경주 남산의 佛蹟'의 전문도 완역!

남산소재 문화재뿐 아니라 남산에서 옮겨져 박물관과 유관기관에 전시된 중요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금석문 자료와 고대문헌 자료 및 연구논저목록 등을 총망라해 수록했으며 영문도 병기했다. 특히 발굴 복원도와 복원에 활용할 탁본과 실측자료를 3차원 IT기록물을 통해 마련했으며 1940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경주 남산의 佛蹟'의 전문도 완역해 실었다.

총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특대판, 고급양장에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

특대판형 圖錄과 解說판 2권에 대중적 가격, 3억여원에 이르는 제작비와 총 700쪽이 넘는 방대한 특대판 고급양장에 도록편과 해설편으로 엮은 '경주 남산'은 전문연구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낄수 있게 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산정하였다.

〈정가 : 2권 1세트 230,000원〉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圖書出版 民族文化

釜山廣域市 南區 大淵 1洞 1754-11號 전화 051)627-2366, 627-2367 / 핸드폰 018)516-2366 / 팩스 051)627-2368